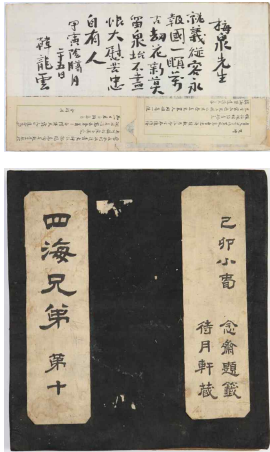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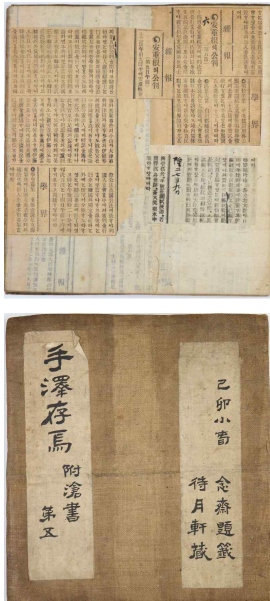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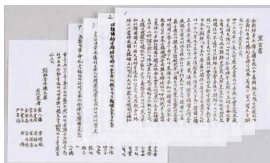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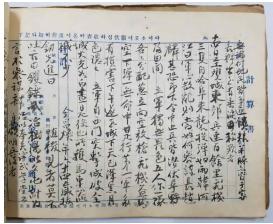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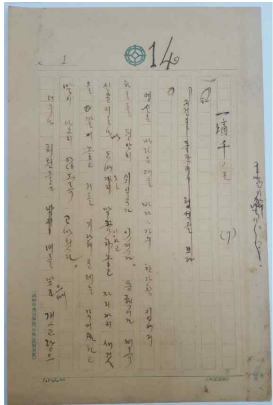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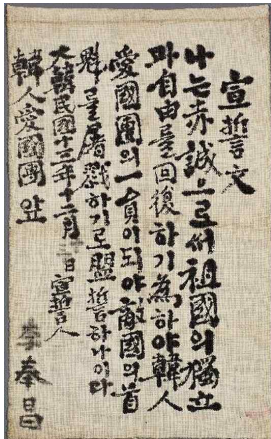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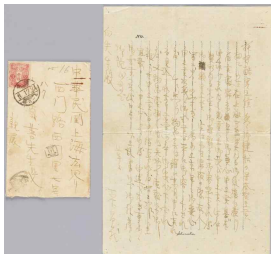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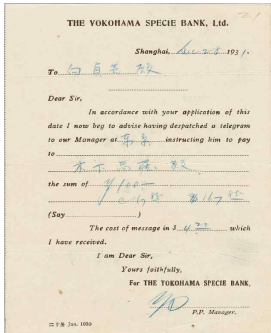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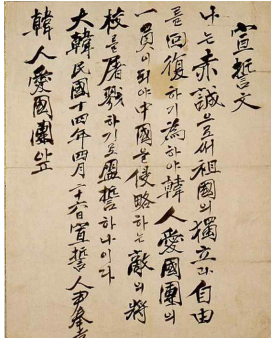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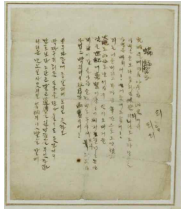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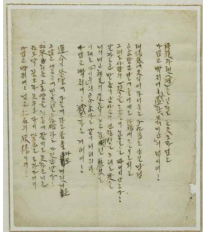
주요 전시유물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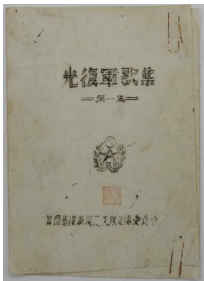
유물명	이미지	내용설명 및 전시의의	비고
황현선생의 절명시와 '대월헌절필첩' (帶月軒絶筆帖)		< 절명시 > 죽음으로 경술국치에 항거한 우국지사 매천(梅泉) 황현(黃瑔, 1855.12.11. ~ 1910.9.10.)이 지은 칠언절구 4수의 한시로 『대월헌절필첩』에 수록되어있음 「帶月軒絶筆帖」 최초 공개 < 絶命詩 > 亂離滾到白頭年 어지러운 세상에 떠밀려 백발의 나이에 이르도록 幾合捐生却未然 몇 번이나 목숨을 끊으려다 뜻을 이루지 못했네 今日眞成無可奈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輝輝風燭照蒼天 바람 앞의 가물거리는 촛불 푸른 하늘 비추누나 妖氛晦翳帝星移 요망한 기운이 하늘을 가려 임금자리 옮겨지니 九闕沈沈晝漏遲 구중궁궐은 침침한데 시각만 더디가네 詔勅從今無復有 이제부터 조칙은 다시 내리지 않을 것이니 琳琅一紙淚千絲 옥같이 아름다운 조서 한 장에 눈물만 하염없네 鳥獸哀鳴海岳嘖 새 짐승 슬피 울고 바다와 산도 시름거리니 槿花世界已沈淪 무궁화 세상은 이미 망하고 말았네 秋鐙揜卷懷千古 가을 등불아래 책 덮고 역사를 돌이켜보니 難作人間識字人 글 아는 사람 구실 어렵기만 하구나 曾無支厦半椽功 일찍이 나라를 위해 한 일 조금도 없었으니 只是成仁不是忠 충은 아니요 다만 인을 이루려 함이로다 止竟僅能追尹穀 겨우 송나라의 윤곡처럼 자결할 뿐이니 當時愧不躡陳東 당시 진동처럼 의병을 일으키지 못해 부끄럽네	등록문화재 등록검토 황현 후손 소장 (전남 순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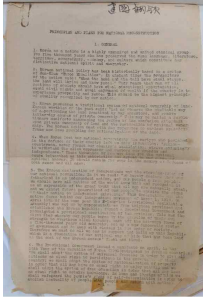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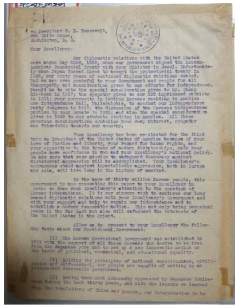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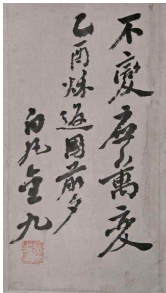
유물명	이미지	내용설명 및 전시의의	비고
황현선생의 '사해형제 (四海兄弟)' (한용운 선생의 친필 시 '매천선생(梅泉先生)' 수록		<매천선생(梅泉先生)> 한용운은 황현의 순국에 감동하여 추모시 <매천선생>을 지어서 그의 순국정신을 기림, 1914년 한용운이 친필로 시를 써서 황현의 유족들에게 직접 보낸 것이 라는데서 의미가 큼(『사해형제(四海兄弟)』 제10권에 수록) 『사해형제(四海兄弟)』 및 내용 최초 공개 < 梅泉先生> 就義從容永報國 의리로써 나라의 은혜를 영원히 갚으시니 一嘆萬古劫花新 한 번 죽음은 역사의 영원한 꽃으로 피어 나네 莫留泉垠不盡恨 이승의 끝나지 않은 한 저승에는 남기지 마소서 大慰苦忠自有人 괴로웠던 충성 크게 위로하는 사람 절로 있으리	황현 후손 소장 (전남 순천)
황현선생의 '수택존언 (手澤存焉)' (신문스크랩)		황현선생이 안중근 의사의 공판기록, 안의사가 하얼빈 의거 전 남긴 시* 등을 꼼꼼히 스크랩하고 밑줄까지 표시한 '手澤存焉' 등 서지류(복제)와 안경 등 생활 유물(진품) 공개 『수택존언(手澤存焉)』 및 내용 최초 공개 * 안중근의사가 이등박문 처단을 위해 하얼빈 방문을 이틀 앞둔 1909년10월24일 저녁 남긴시로 영웅적 기상의 시(대한매일신보, 1909.12.23) : 丈夫處世 其志大矣 대장부가 세상에태어나 그 뜻이 크도다 / 時造英雄 英雄造時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가,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가. / 雄視天下 何日成業 천하를 굽어 보노니 어느 날에 큰일을 이룰꼬 / 東風漸寒 壯士義熱 동풍은 점점 차가우나 장사의 의지는 뜨겁도다.(이하 중략)	* 황현 후손 소장 (전남 순천)
황현선생의 생활유물		 	* 원본전시 순천대학교 박물관 소장 (전남 순천)
	안경	벼루	필가
2.8독립선언서		젊은 동경유학생들이 1919년 2월 8일 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발표한 독립선언서. 일제 식민지정책의 야만적 성격을 폭로하였고, 일제와 열강은 마땅히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한국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무단통치하에 신음하는 2000만 민족의 고통과 강렬한 독립요구를 한층 절실하게 표명함	독립기념관 소장 (충남 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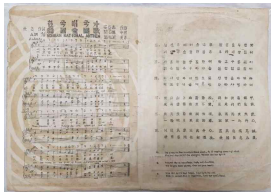
유물명	이미지	내용설명 및 전시의의	비고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 (등록문화재 제730호)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감시 대상이었던 인물 4,857명에 대한 신상카드로 1920~1940년대에 일제 경찰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됨. 카드에는 안창호, 이봉창, 윤봉길, 김마리아, 유관순 등 일제에 항거한 독립 운동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사진·출생 연월일·출생지·주소·신장 등 개인의 기본정보 외에 활동·검거·수형에 관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음. 부착된 인물사진은 희귀한 경우가 많으며, 당대의 민족운동이나 독립운동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때 가장 신빙성 있고 설득력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 있음	국사편찬 위원회 소장 (경기 과천)
이규채 일기와 사진 (원본)	  	이규채(李圭彩, 1890~1947)는 1932년 9월 제1차 쌍성보 전투에 참전하는 등 만주지역 독립운동사의 핵심인물임. 그는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나 1919년 3·1운동 후 상해로 망명, 1924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원 의원이 되고, 1930년 한국독립당에 가입, 정치부 위원 겸 군사부 참모장을 거쳤음. 1934년 신한독립당 감찰위원장이 되었으나, 1935년 상하이에서 일본영사관 소속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40년 가출옥하였음 현재 후손이 소장 중인 <이규채 일기>는 이규채가 1944년에 자신의 독립운동 여정을 회고하면서 계산서 용지에 기입한 것임. 이 글을 통해 이규채라는 독립운동가의 생생한 삶의 궤적을 엿볼 수 있음. 또한 만주지역의 독립운동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 간과되었던 단체들,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간의 갈등, 일제의 독립운동가 감시와 체포 양상, 독립운동가 사이의 내부 배신,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있으며, 3점의 단독 사진과 1점의 단체사진을 통해서 이규채의 변화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음	* 원본전시 등록문화재 등록검토 이규채 후손 소장 (서울)
심훈 친필원고 『상록수』		당진 심훈기념관에 소장되어있는 심훈 『상록수』의 친필원고 9장(3장 전시)은 동아일보에 연재하기 위한 초고형태로 1935년 7월 경(동아일보 1935.10.4. 수록)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상록수』는 1935년 동아일보 창간 15주년을 기념한 장편소설 현상 모집에 당선되어 동아일보에 1935년 9월 10일부터 1936년 2월 15일까지 127부가 수록된 농민문학의 대표 작품임	* 원본전시 심훈기념관 소장 (충남 당진)

유물명	이미지	내용설명 및 전시의의	비고
이봉창 의사 선서문		두터운 천 위에 붓으로 쓴 국한문혼용체 선서문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의지와 시대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로 일본국왕 처단의 의지를 맹세한 내용을 기록. 이봉창 의사는 1931년 12월 13일 양손에 수류탄을 들고 선서식을 마친 뒤 1932년 1월 8일, 동경 경시청 앞을 지나가는 일왕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는 의거를 단행했다가 10월 10일 순국하였음 (선서문 내용) “나는 적성으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괴를 도륙하기로 맹서하나이다. 대한민국 13년 12월 13일 선서인 이봉창(李奉昌) 한인애국단 앞” ‘이봉창 의사 선서문과 유물’은 의거의 전개 과정과 항일독립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봉창 의사의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문화재적 가치가 높음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중 * 국립중앙 박물관 소장 (서울)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		이봉창 의사가 백정선, 즉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김구에게 보낸 일본어 편지로 일본 동경에 도착한 이봉창이 상해의 백정선에게 도착과 물품입수가 가능하다는 현지상황을 알리고 있음 이 편지는 김구에게 의거가 1932년 1월에 있을 것을 언급하고 재정 지원을 부탁한 이 편지로, 이봉창 의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음 * 소장처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 자료를 ‘K. S. 서간문’이라고 명명하여 보관중이었으며,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통해 내용을 해제함	
이봉창 의사 거사자금 송금증서		김구(백정선)이 기노시타 마사조(木下昌藏)에게 1931년 12월 28일 100엔을 요코하마 정금은행 [横濱正金銀行, Yokohama Shōkin Ginkō] 상해지점을 통하여 송금하였다는 내용임. 즉 이봉창의 편지를 받은 김구가 요코하마 정금은행 상해지점을 통하여 거사자금 100엔을 송금한 영수증임. 이봉창은 1932년 1월 4일 송금액을 인출하였으며, 1월 8일 일본국왕에게 폭탄을 투척함 *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 자료를 ‘영자지불통지서’라고 명명하여 보관중임	

유물명	이미지	내용설명 및 전시의의	비고
윤봉길의사 선서문 (보물568-1)		선서문(尹奉吉義士 遺品-宣誓文)은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일으킨 독립운동가 윤봉길(1908~1932)의사가 남긴 유품들 가운데 하나로 김구선생의 한민애국단에 입단하는 것을 직접 손으로 쓴 선서문으로 크기는 가로 21.5cm, 세로 27cm임.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6일 입단 선서식을 하고, 4월 29일 천장절(天長節) 겸 전승축하기념식에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로 검거되어 12월 19일 순국함 (선서문 내용) “나는 적성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민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대한민국 14년 4월 26일 선서인 윤봉길 한민애국단 앞”	국립중앙 박물관 소장 (서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안중근 의사 가족	 도산안창호 선생의 안정근 댁 방문  임정요인들과 함께한 안공근(1935년)	안중근 의사의 모친 조마리아 여사와 부친 안태훈 선생은 슬하에 안중근, 안성녀, 안정근, 안공근 3남 1녀의 자녀를 두었고, 이들은 모두 독립운동에 헌신했음. 장남 안중근 의사는 한국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해 독립운동사에 한 획을 그었으며, 차남 안정근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삼남 안공근 선생은 백범 김구 선생의 한민애국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며, 딸 안성녀 선생은 안중근 의사 의거 이후 중국으로 망명, 독립군 군복을 만들며 독립을 위해 헌신했음	안중근 기념관 소장 (서울)
이육사 친필원고 '편복(蝙蝠)' (등록문화재 제713호)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이원록, 1904~1944)가 남긴 시 '편복'의 친필원고로, 동굴에 매달려 살아가는 박쥐에 빗대어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을 형상화함 당시 '편복'은 일제의 사전 검열에 걸려 발표되지 못했으나, 해방 후인 1956년 '육사시집'에 처음 수록되어 일반에 알려지게 됨 이육사의 시 중에서 가장 중량 있고 훌륭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편복'의 친필원고는 유족들이 소장해오다 경북 안동에 소재한 이육사문학관에 기증되었음	* 원본전시 이육사 문학관 소장 (경북 안동)

유물명	이미지	내용설명 및 전시의의	비고
이육사 친필원고 '바다의 마음' (등록문화재 제738호)		「이육사 친필원고 '바다의 마음」은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이원록, 1904~1944)가 남긴 시 '바다의 마음'의 친필원고로, 3행 3연으로 구성된 이육사는 당시 신문과 잡지에 글을 발표하면서 항일·민족정신을 고취하는 활동을 하였고, 여러 독립운동 단체에 가담하여 투쟁하다 1944년 1월 16일 베이징 일본총영사관 감옥에서 순국하였음 이육사의 친필 시 원고는 문학사적 중요성에 비하여 극히 희귀한 편으로, 등록문화재 제713호 '편복(蝙蝠)' 외에는 '바다의 마음'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짐	* 원본전시 이원기 후손 소장 (경북 경산)
광복군가집 제1집 (등록문화재 제474호)		「광복군가집 제1집」은 한유한(한형석, 1910~1996)이 작곡한 <국기가>, <2지대가>, <광복군가>, <압록강행진곡> 등을 숫자보로 편찬한 등사본 군가집으로, 한국광복군 제2지대 선전위원회가 1943년에 발간함 한유한은 한국청년전지공작대, 광복군 제5지대 및 제2지대 선전대장으로 복무하면서 수십여곡의 광복군가 등을 작곡하여 항일투쟁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작곡가로 광복군가집 제1집은 일제강점기에 발행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원본 광복군가집으로 역사적, 사료적 가치가 큼	* 원본전시 한유한 후손 소장 (부산)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등록문화재 제740호)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조소앙(본명 조용은, 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하여 독립운동과 건국의 방침 등을 정리한 국한문혼용의 친필문서.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원안대로 통과되었음. 대한민국임시정부 최종헌법인 임시헌장을 제정하는 데 그 이론적 기초가 되었으며, 1948년 제헌헌법의 기본적 바탕이 되었음. 이 문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광복 후 어떠한 국가를 세우려했는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로, 그가 고심하여 수정한 흔적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더욱 가치가 높음. 조소앙은 광복 후 국회의원 등으로 활약하다 6.25.전쟁 중 납북되었음	* 원본전시 조소앙 후손 소장 (경기 고양)

유물명	이미지	내용설명 및 전시의의	비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영문)		독립운동과 건국의 방침 등을 정리한 '건국강령'의 영문본	* 원본전시 조소앙 후손 소장 (경기 고양)
루즈벨트 외교서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3선 축하 및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1941)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 부인이 날인됨	* 원본전시 조소앙 후손 소장 (경기 고양)
채유기념첩 (在渝紀念帖)- 대한민국 임시정부요인 23인 필첩		중국 중경에 망명 중이던 이시영, 김구, 유동열, 김규식 등 23인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이 8·15 해방과 더불어 중경을 떠나던 전날 저녁에 모여 각자의 포부와 기대를 붓으로 옮긴 것. 대부분이 독립하는 신생조국 건설에 대한 그들 나름의 뜻을 담은 내용들로 대동단결(大同團結), 자립(自立), 자유(自由), 신사상(新思想) 등을 강조함.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내로 돌아오기 전 임정 요인들의 다짐을 이해할 수 있음	등록문화재 등록검토 충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박물관 소장 (서울)
백범 김구 유묵 신기독(慎其獨) 등록문화재 제442-2호		김구(金九, 1876~1949)선생이 쓴 붓글씨로 1949년 6월 26일 서거 당시 책상 위에 놓여있던 두루마리 중 하나이며, 가장자리에 혈흔이 남아 있어 그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증명해주는 유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큼. 김구 선생은 1932년 윤봉길의사의 상해 의거 이후 본격적으로 붓글씨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유묵(遺墨)은 150여점에 달하는데, '홀로 있을 때도 삼가다'는 신기독 (慎其獨)의 의미가 당시 선생이 처한 상황과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상징적 가치 큼	김구재단 소장 (서울)
백범 김구 유묵 사무사(思無邪) 등록문화재 제442-3호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경구인 '생각함에 그릇됨이 없다'라는 뜻으로 신기독(慎其獨)과 같은 시기에 쓰여짐	김구재단 소장 (서울)

유물명	이미지	내용설명 및 전시의의	비고
한중영문중국판 한국애국가 악보 (등록문화재 제576호)	 	개인 소장의 <한중영문중국판 한국애국가 악보>는 중국 중경에서 1945년 11월 12일에 발행된 낱장의 인쇄물임. 앞면은 '韓中英文中國版 韓國愛國歌(한중영문중국판 한국애국가)'라는 제목이 있으며, 제목 왼쪽에 '金九題(김구제)'와 '金九之印(김구지인)'이라는 장서인 및 김구의 친필로 '一九四五 十月十八日(일구사오 십월십팔일)'이 적혀 있음 뒷면은 김구 주석의 사진이 중앙에 있고, 사진 아래에는 애국가의 창작 과정 및 번역자 소개가 있다. 1945년 11월 12일에 충칭에서 초판으로 발행하였으며, 출판사는 음악월간사이다. 안쪽에 애국가 악보와 가사가 적혀 있고, 한국어·중국어·영어 가사를 순서대로 배열해 놓았음. 중국어 번역은 민필호(閔石麟), 영문 번역은 정환범(鄭桓範) 박사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한국 국가를 중국에 처음 소개함으로써 환국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석 김구의 위상을 알렸으며, 국가를 악보로 발간하여 국가적 대표성을 중국 및 국제사회에 보여줬음. 현행 '애국가'의 역사성을 비롯하여, 변천 과정, 법적 지위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유물임	개인 소장 (경기 성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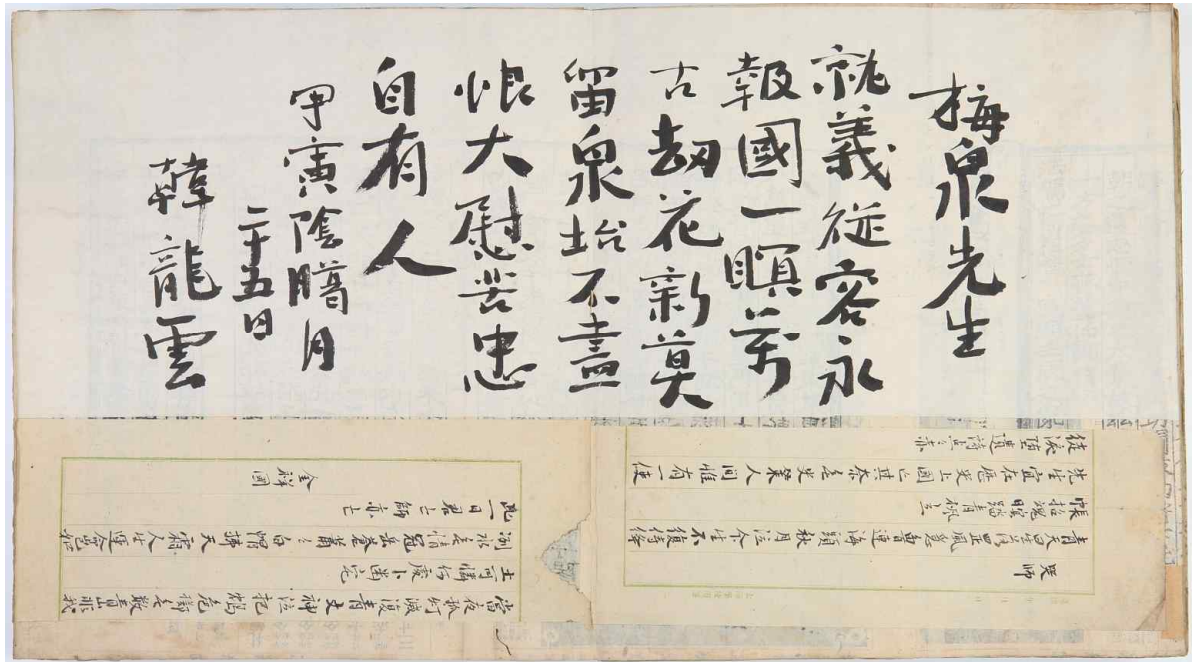
사 진 자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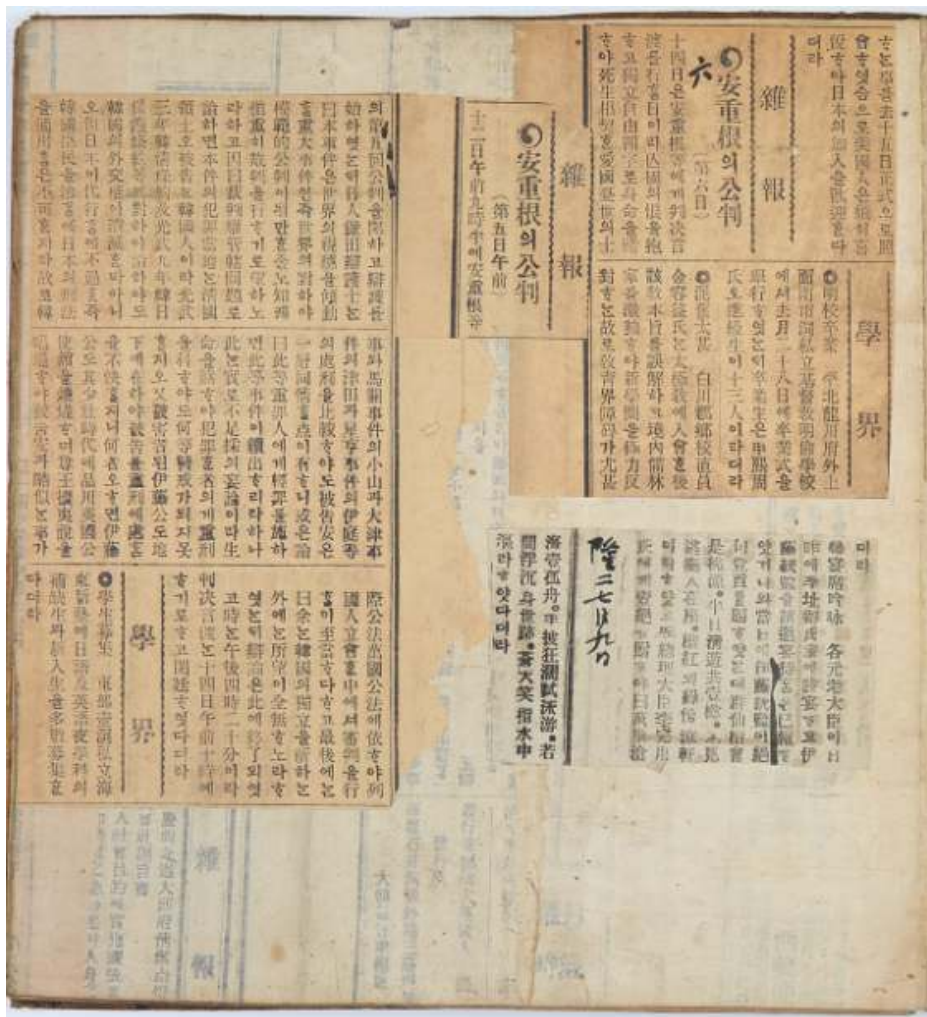
<황현 '절명시'>



<절명시가 수록된 『대월헌절필첩(帶月軒絕筆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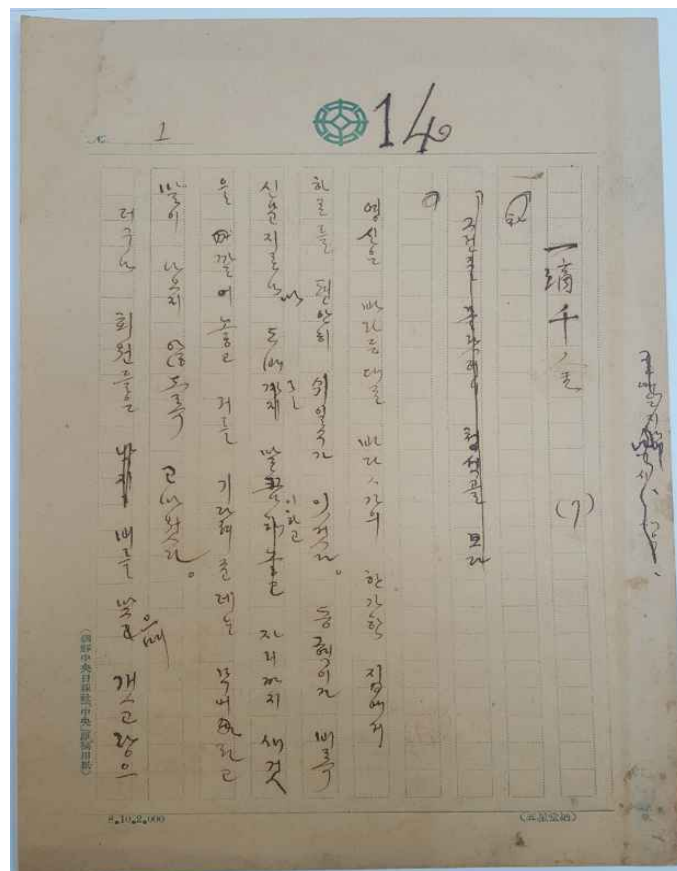
<황현 '사해형제(四海兄弟)' - 『사해형제(四海兄弟)』 제10권에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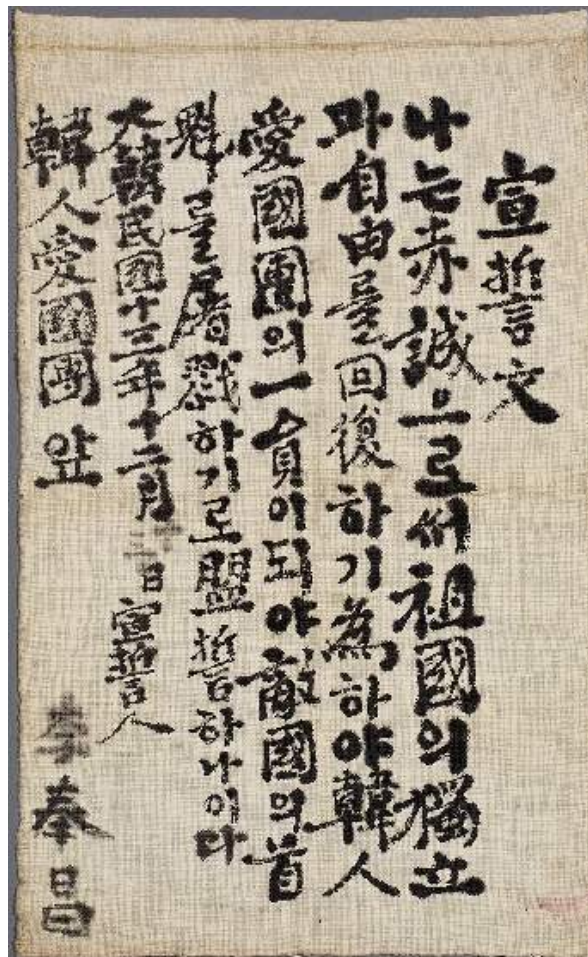
<황현 '수택존언(手澤存焉)' - 신문스크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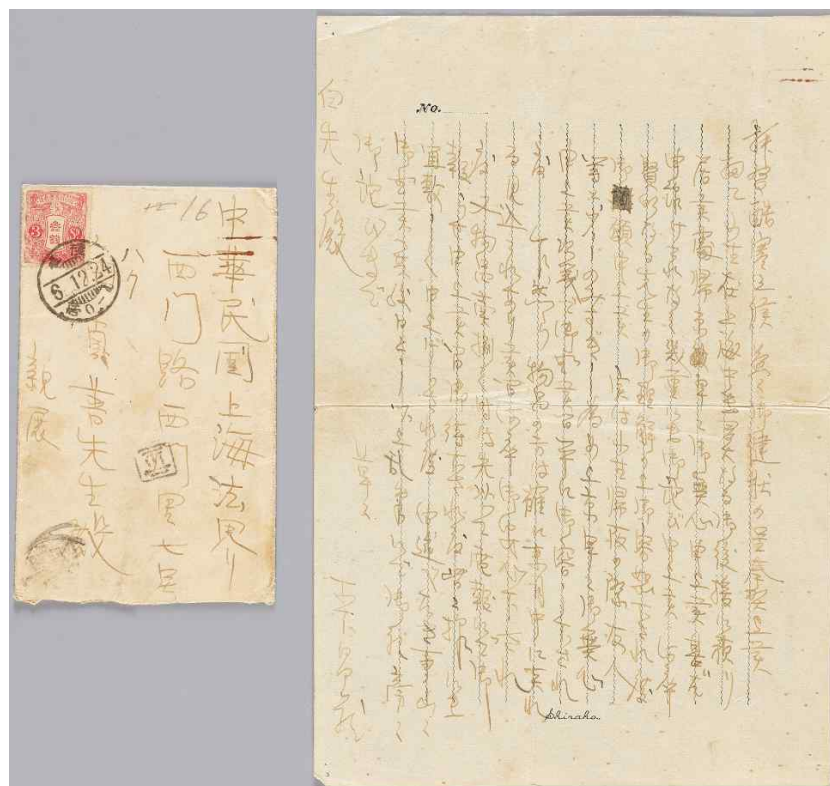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등록문화재 제730호)>



<심훈 친필원고 『상록수』 중>



<이봉창 의사 선서문>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

THE YOKOHAMA SPECIE BANK, Ltd. 21

Shanghai, Dec 28 1931.

To 白貞義 敬

Dear Sir,

In accordance with your application of this date I now beg to advise having despatched a telegram to our Manager at 東京 instructing him to pay to 木下昌義 敬

the sum of 4100.00 417.85 417.85

(Say)

The cost of message in \$ 4.23 which I have received.

I am Dear Sir,

Yours faithfully,

For THE YOKOHAMA SPECIE BANK,

P.P. Manager.

二十曆 Jan. 1932

<이봉창 의사 거사자금 송금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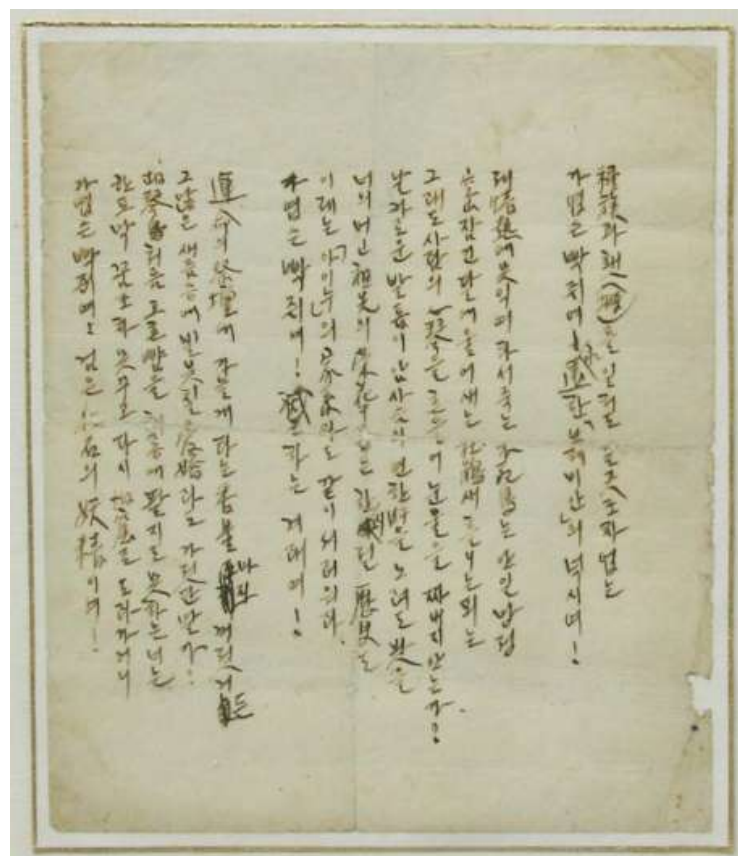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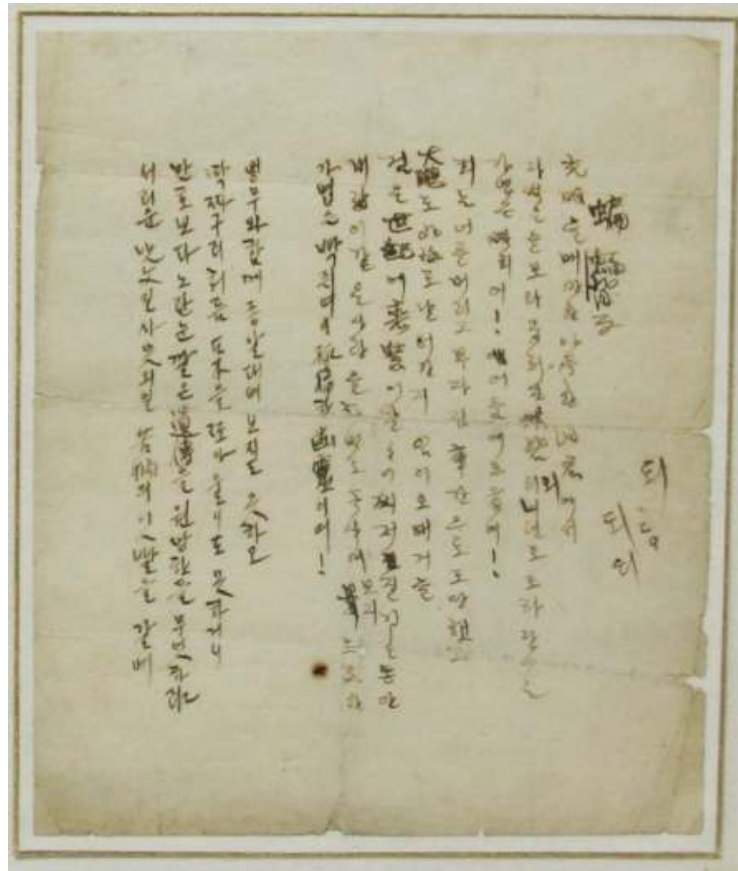
宣紙言文

予는 赤誠으로 祖國의 獨立과 自由를 回復하기 爲하야 韓人愛國團의 一員이 되야 中國을 侵略하는 敵의 將校를 屠戮하기로 誓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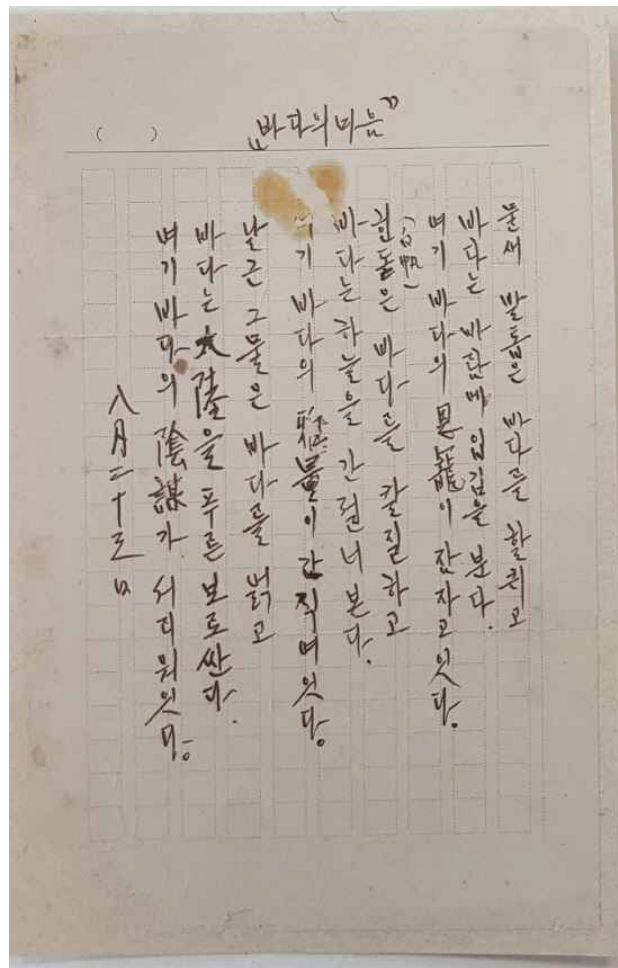
大韓民國十四年四月二十日 宣紙言人尹奉吉

韓人愛國團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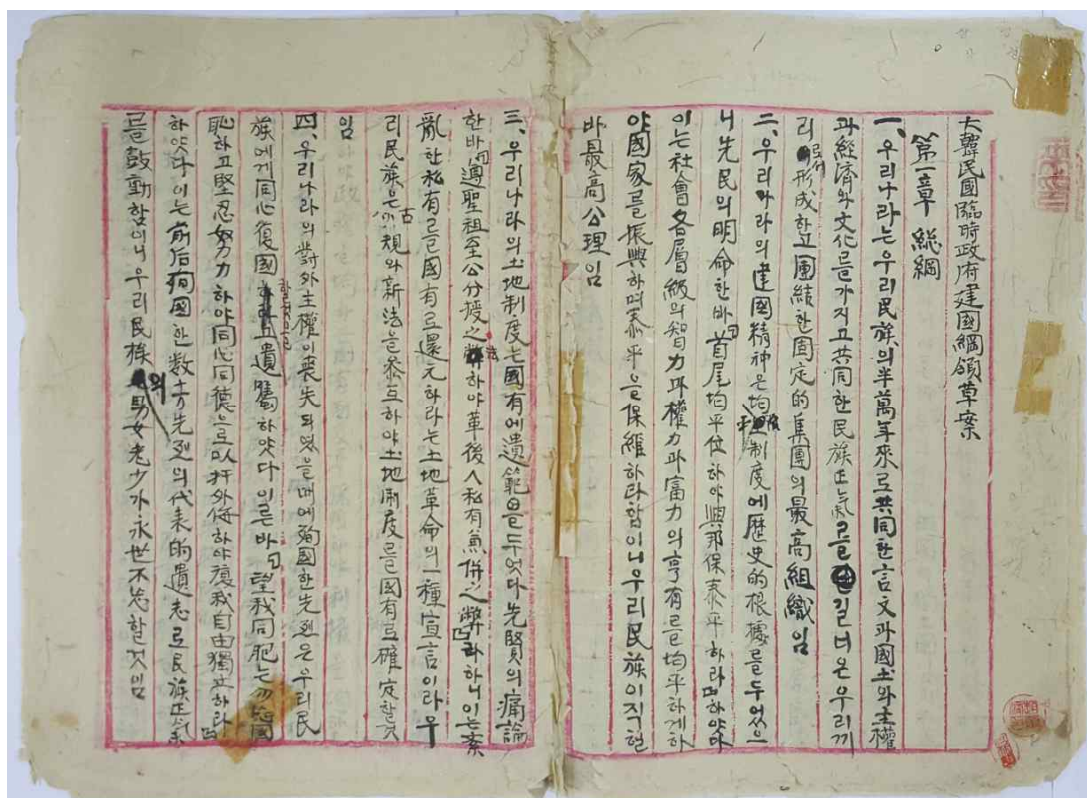
<윤봉실 의사 선서문(보물 제568-1호)>



<이육사 친필 원고 '편복(蝙蝠)'(등록문화재 제713호)>



<이육사 친필원고 '바다의 마음'(등록문화재 제73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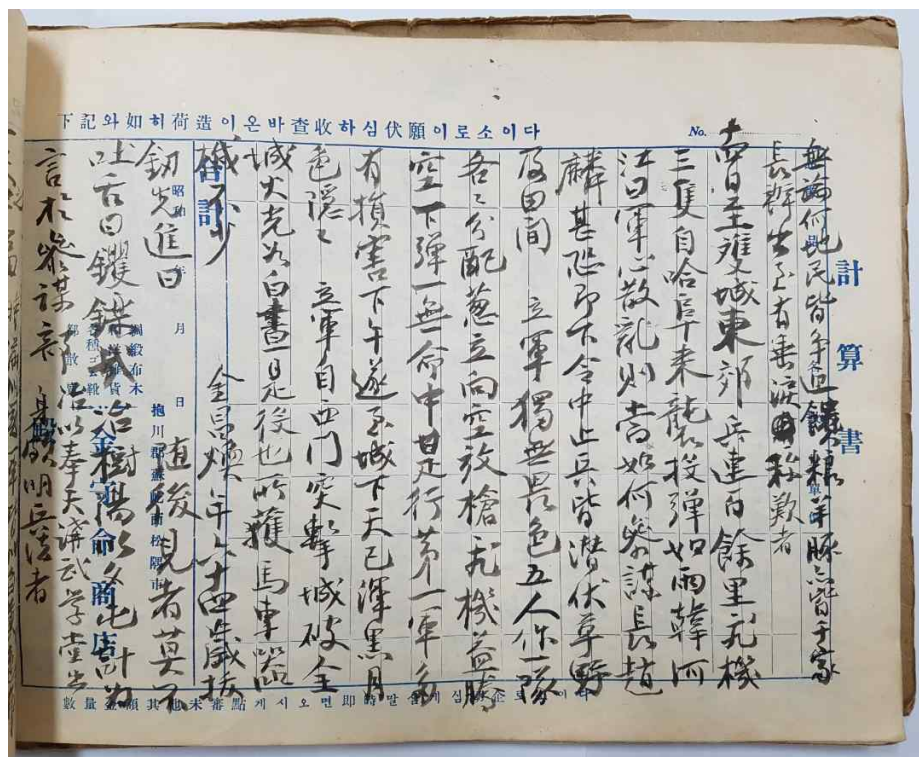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등록문화재 제740호)>



<등록문화재 제442-2호 백범 김구 유묵 慎其獨(신기독)>



<등록문화재 제442-3호 백범 김구 유묵 思無邪(사무사)>



<이규채 일기와 사진(원본)>